



바쉐론 콘스탄틴이 제네바 부티크에서 진행하는 전시,

"딤티크(DIPTYQUES)"
: 콜라보레이션의 역사

2019년 1월 14일 - 2019년 3월 26일

2019년 1월, 제네바 - 바쉐론 콘스탄틴은 2019년 1월 14일부터 3월 26일까지 메종의 제네바 부티크에서 *"딤티크(DIPTYQUES)" 콜라보레이션의 역사* 전시를 진행합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프라이빗 헤리티지 컬렉션에서 선정된 17종의 타임피스를 통해 메종의 역사에 굽직한 이정표를 남긴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경의를 표합니다. 뛰어난 워치메이킹과 타임피스에 활기를 불어넣는 기술력, 예술적 혁신을 낳은 스페셜 콜라보레이션, 거장의 만남 등을 재조명하며 파인 워치메이킹 역사의 중요한 페이지를 선보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그림이 만나 하나의 작품으로 보여지는 이쪽화를 의미하는 딤티크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콜라보레이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표현입니다. *"딤티크(DIPTYQUES)" 콜라보레이션의 역사*는 두 브랜드의 서로 다른 비전과 기술을 통해 깊은 유대감을 형성한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메종 창립자의 손자이자 타고난 기술을 가진 워치메이커, 자크-바텔레미 바쉐론 Jacques-Barthélemy Vacheron 과 유능한 사업가이자 용감한 여행가 프랑소와 콘스탄틴 François Vacheron 은 1819년 자신들의 재능을 의기투합하여 함께 사업을 도모하기로 결정합니다. 2019년, 이들이 만난 지 200주년을 기념하여 메종을 상징하는 탁월한 워치메이킹과 숙련된 노하우를 구현해 낸 것은 물론, *"가능한 한 더욱 잘하라. 그것은 언제나 가능하다"* 라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모토를 강조하였습니다. *딤티크(DIPTYQUES)*는 계속되는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더 큰 발전을 이루어내는 메종의 스토리를 전합니다.

에밀 플랜타모어 Emile Plantamour 에서 알버트 펠라톤 Albert Pellaton, 레이몬드 모레티 Raymond Moretti, 미셸 뷔토르 Michel Butor 를 아우르는 지식인과 예술가들은 도전과 열정을 추구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특별한 워치메이킹이 걸어온 유구한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인물들은 대규모 프로젝트 속에서 기획자이자 장인으로서 활약하며, 미래 지향적인 사고와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선보였습니다. 1839년 바쉐론 콘스탄틴이 고용한 워치메이커 조지 오거스트 레쇼 Georges-Auguste Leschot 는 무브먼트 생산을 표준화하고 상업적 규모로 부품 제작을 가능하게 만든 혁신적인 장치인 팬토그래프를 발명했습니다. 1932년, 루이 꼬띠에 Louis Cottier 는 독창적인 회전 디스크 장치를 사용하여 타임 존을 표시하는 월드 타임 디스플레이를 개발했습니다. 탁월한 주얼러이자 워치메이커인 페르디난드 버저 Ferdinand Verger 는 1880년 황제를 위하여 바쉐론 콘스탄틴의 무브먼트가 탑재된 파베르제의 달걀을 제작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1930년대까지 컴플리케이션을 장착한 시계와 화려한 장식이 돋보이는 시계를 제작하며 메종의 워치메이커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임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2010년, 미니어처 에나멜링 기법의 대가, 아나타 포르쉐 Anita Porchet 는 메종을 위해 마르크 샤갈이 그린 오페라 가니에르의 천장화를 완벽하게 재현해낸 걸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이처럼 다양한 시너지를 강조합니다. 각각의 이야기는 도전이자 대담한 움직임이며, 워치메이커와 장인들의 천재적인 재능이 조화를 이룬 꿈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모두 선구적인 개척자이자 탁월한 개발자로서 바쉐론 콘스탄틴이 만들어내는 최고급 시계의 특별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딤티크(DIPTYQUES)"
: 콜라보레이션의 역사

2019년 1월 14일부터 3월 26일까지
바쉐론 콘스탄틴 부티크, Place de Longemalle 1, Geneva.

월요일~금요일 (10am~6:30pm),
토요일 (10am~5pm)